

최웅식. 2022. “독일연방대통령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50주기 추모식」 연설” 『인권연구』 5(2): 189-209.

Choi, Woong Shik. 2022. “Speech by the German Federal President at the Commemorative Event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 at the 1972 Munich Olympic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2): 189-209.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2.5.2.189>

[국제인권동향]

독일연방대통령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50주기 추모식」 연설*

최 웅 식**

해 설

2022년 9월 5일은 「제20차 하계 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던 독일 뮌헨(München)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2년 그날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올림픽선수촌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이스라엘 선수단이 묵고 있던 숙소에 침입하여 선수단 11명 중 2명을 현장에서 살해하고, 나머지 9명을 인질로 잡아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독일 당국이 펼친 구출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인질 9명 전원과 독일인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다.1)

그날의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2022년 9월 5일 바이에른주(Bayern州) 푸르스텐펠트브루크(Fürstfeldbruck)에서 거행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50주기 추모식」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연방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Iss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추도 연설을 하였다. 이 날 추모식의 주빈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러

* 이 글은 필자 개인이 번역하고 해설을 붙인 것으로 소속기관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 이 사건은 2005년 영화 <뮌헨>(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화는 이 사건 발생 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벌인 작전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이번 독일 대통령의 추도 연설은 사건 발생 전후 독일 정부 당국의 대비책과 대응과정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추모식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족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독일 정부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당한 배상액 등을 둘러싸고 지난 수십 년간 유족들과 독일 정부 당국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추모식을 며칠 앞두고 양측이 과거사의 진상규명, 책임 인정, 그리고 배상에 합의하였고,²⁾ 이에 따라 유족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이번 50주기 추모식에서 독일 대통령이 당시 독일 정부 당국의 거듭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한편,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인정하고 참사와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스라엘-독일 역사가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정리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³⁾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온 반성과 약속이라는 점에서 조치로 여겨지기도 하나, 이제라도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꾸려질 양국 공동의 역사가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질지 지켜볼 일이다.

이하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낭독한 추도 연설문⁴⁾의 우리

2) “Bundespräsident Steinmeier und der israelische Präsident Herzog zur Einigung der Bundesregierung mit den Angehörigen der Opfer des Attentats während der Olympischen Spiele 1972” (독일연방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 8. 31. 보도자료) URL: <https://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2/08/220831-Herzog-Statement-Einigung.html> 접속: 2022. 11. 23.

3) “Gedenken zum 50. Jahrestag des Olympia-Attentats” (독일연방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 9. 5. 연설문) URL: <https://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DE/Frank-Walter-Steinmeier/Reden/2022/09/220905-Gedenken-Olympia-Attentat.html> 접속: 2022. 11. 23. 영문 번역본은 “50 years after the attack on the Israeli Olympic team” (독일연방대통령실 영문 홈페이지 2022. 9. 5. 연설문) URL: <https://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EN/Frank-Walter-Steinmeier/Reden/2022/220905-Furstenfeldbruck-commemoration.html> 접속: 2022. 11. 23. 히브리어 번역본은 URL: <https://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Downloads/DE/Reden/2022/09/220905-Gedenken-Olympia-Attentat-Hebraeisch.pdf> 접속: 2022. 11. 23.

4)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당일 실제로 낭독한 추도 연설문은 홈페이지에

말 번역과 독일어 원문⁵⁾이다.

주제어: 독일,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테러리즘, 참사, 책임, 추모, 기억,
진상규명, 과거사 정리

게시된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덧붙여지거나 수정된 부분이 몇 군데 있다.

5)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추모 연설을 중계한 방송사 영상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했다. URL: https://www.youtube.com/watch?v=7Wf5vQ_GzzM 접속: 2022. 11. 23.



<사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2022. 9. 5.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50주기 추모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 슈타인마이어 독일연방대통령의 Facebook 계정에 게시된 동영상(2022. 9. 6.) 화면 갈무리 URL: <https://www.facebook.com/Bundespraesident.Steinmeier/videos/bundespr%C3%A4sident-steinmeier-hat-die-familien-der-opfer-des-m%C3%BCnchener-olympia-atte/378399061154602> 접속: 2022. 11. 23.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연방대통령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50주기 추모식」 연설

다비드 베르거
안톤 플리거바우어
제프 프리드만
요세프 구트프로인트
엘리에저 할핀
요세프 로마노
아미추르 샤피라
케헛 쇼르
마르크 슬라빈
안드레이 슈피처
야코프 슈프링어
모세 바인베르크⁶⁾

존경하는 유족 여러분, 이스라엘 대통령 각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님, 연방공화국과 바이에른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분,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당시 아직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잔혹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12명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선수단 11명과 경찰관 1명을 애도합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일부로서 큰 포부와 큰 희망을 품고 뮌헨으로 왔던 11명의 유대인 선수, 코치, 심판들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1972년 9월 5일 이른 새벽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검은 9월단” 소

6)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희생자인 유대인 선수단 11명과 경찰관 1명의 명단.

속 중무장한 단원 8명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올림픽선수촌에 침입하여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단원들은 코놀리가(Connolly街) 31번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인질 중 2명을 이미 잔인하게 살해했고, 독일 기동대의 구출작전이 파국적으로 실패한 현장이었던 바로 이곳에서 나머지 9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구출작전은 피바다로 끝났습니다.

유대인 선수단 11명이 독일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하필이면 독일에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은 애도의 날, 추모의 날, 그리고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저는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헤르초그 대통령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저의 곁에 있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 유족분들과 이스라엘 국가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격에 맞는 추모식을 갖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추모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지난 몇 주 간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간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들, 남편, 아버지를 상실한 것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고, 지금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첫째를 출산했으나 그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젊은 여성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인행위의 흔적들로 얼룩진 방 사진들을 접하고, 그리고 남편 또는 아버지가 그 방에서 수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견뎌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총상을 입고 동료 선수들 앞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과다출혈로 죽어가야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살해된 아들이 모든 것이 멋지고 집에 돌아갈 날을 고대한다고 적어 보낸 엽서 두 통을 뮌헨으로부터 받을 때 어떻게 계속 살아

갈 수 있을까요?

고통, 아픔,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가족 속에 오늘까지 계속 살아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더는 1972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는 그럴 수 있었고, 마땅히 그랬어야 할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아픔은 50년 간 지속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뮌헨 올림픽대회는 1936년 독일에서 나치가 요란한 프로파간다쇼로 연출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위해 올림픽이념을 과렴치하게 비양심적으로 악용한 앞선 대회와 완전히 다르게 치러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 뮌헨은 1936년 베를린과 대척점에 있는 대회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립된 지 얼마 안된 연방공화국은 민주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전 세계에 개방된 자유사회임을, 역사 앞에서 자국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꼬챙이투구나 분열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독일에서 “경쾌한 대회”를 선사하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최국으로서 특히 이스라엘 선수들을 비롯한 전 세계 남녀 선수들에 대한 책임 또한 있었습니다. 건국 첫날부터 증오와 적대감으로 둘러싸인 채 위협받고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 국가가 강력하고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쇼아(Shoah)라는 반인류범죄가 자행된 이후 가해국이 주최하는 올림픽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굳건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선수들과 코치 중에는 쇼아의 생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추모의 슬프고 뼈아픈 진실에는 우리가 좋은 주최국이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선수단과 그 가족들이 독일에 준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

해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테러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대비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쓰라린 진실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해외 테러리스트들이 냉혈적이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올림픽 이념을 악용하는데 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텔레비전 관중 앞에서 의도를 갖고 연출된 테러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독일을 평화를 애호하고 친화적인 민주국가로 보여주기 위한 1972년 바로 그 노력은 뮌헨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올림픽선수촌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국제무대,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위한 국제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는 벌어져서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실로 비열한 범죄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당시 독일 대통령 구스타프 하이네만이 말한 바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평정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로 비열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뮌헨의 재앙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논리적 오류이고, 이것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독일인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은 더는 묻지 못하게끔 후속 질문을 막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주의를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었을 사태가 왜 발생한 것일까요?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모를 하려면 울곧고 참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 뼈아플 것입니다. 특히 유족 여러분께 말입니다. 하지만 독일에 있는 우리에게도 뼈아픈 기억이어야

합니다.

1972년 뮌헨에서 벌어진 사건은 유족들의 삶에 깊고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뮌헨의 트라우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러공격은 뮌헨시,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깊고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뼈아픈 깨달음에 이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오늘 올곧은 추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올림픽 테러의 역사가 오판의 역사, 끔찍한, 치명적인 실수의 역사, 실패의 역사이기도 한 것을 인정할 경우 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러한 인정은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독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살해에 대한 범행책임은 팔레스타인 범인들과 그 리비아 조력자들에 있습니다. 오늘날 양국의 정치 대표자들로부터 한 마디의 동정의 표현도, 한 마디의 유감 표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씁쓸합니다. 자신들의 증오와 테러를 뮌헨으로 가져온 장본인은 범인과 그 조력자들, 팔레스타인 테러범과 그 배후 조종자 8명이었습니다.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면책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했어야 했던 것을 예방하지 못한 주최국으로서의 책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장악된 인질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회는 추모식이 있던 날에 곧바로 재개되었습니다. “대회는 계속돼야 한다.” 정치권 또한 가능한 한 빨리 본래 일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테러 이후 수년간, 수십년간 침묵과 심리적 억압이 이어졌고, 해가 갈수록 유족들의 안부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됐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무심함. 이 또한 실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남은 범인들은 왜 이토록 신속하게 추방되고 결코 기소된 적 없었을까요? 당시 범인 중 한 명이 지금도 이 범죄를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 카메라 앞에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범인들과 독일 내 극우주의자 또는 적군파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무엇이였을까요? 독일의 보안무장병력은 왜 이토록 부실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힘에 겨워하고 있었을까요? 독일은 이스라엘 측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였을까요? 그리고 구출작전에서 이스라엘의 지원은 왜 거절되었을까요? 왜 기록물들은 수 십 년 간 봉인된 채 보존되거나 그 존재마저 부인되었을까요? 왜 조사위원회조차 없었을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크나큰 비극과 삼중 실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경기 준비와 안보에 대한 구상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 실패는 1972년 9월 5일과 6일에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됩니다. 세 번째 실패는 테러가 있던 다음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심리적 억압, 그리고 망각이 그것입니다!

저는 연방정부가 이제 이스라엘-독일 역사기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각별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이 어두웠던 시기를 더 밝혀주는 데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전제는 위원회가 문서에 대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인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위원회의 업무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들의 업무는 어쩌면 뼈아프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72년 뮌헨의 역사를 대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해 온 역사 또한 정리해야 합니다.

1972년 뮌헨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적 증오, 특히 반유대주의적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는 역사 앞에

서 우리가 지는 책임이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다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국가로서 우리는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안보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를 조건 짓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자유를 표적으로 삼는 테러로부터 자신을 결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모두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들이 안팎에서 더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2년 뮌헨은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 때만, 우리의 실수와 태만을 인정할 때만 1972년 우리 법치국가도 입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중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유족 여러분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마침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수 십 년 동안 괴롭혀온 물음들에 대한 답을 마침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이토록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었는가라는 물음도 포함됩니다.

격에 맞는 기억의 장소가 올림픽공원에 조성되기까지 45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5년 전 개막식에는 레우벤 리블린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과 몇몇 유족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애도하고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배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또 5년이 걸렸습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유족 여러분, 헤르초그 대통령 각하, 우리는 목숨을 잃은 12명을 조용히 추모하며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감하며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픔, 유족의 아픔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분

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이룬 합의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 50년 간 상실감, 슬픔,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원상복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겪은 거부와 무시와 부정의 또한 원상복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 이곳 뮌헨에서 사과를 드렸고, 오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이름으로 저는 뮌헨 올림픽대회 당시 이스라엘 선수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이후 진상규명이 부족했던 점,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 대해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독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제 의무이자 바람입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가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선사한 우정과 화해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독일인들이 이 우정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에 부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50년 전 이 장소에서 그토록 손상되었던 자산인 신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Rede vom deutschen Bundespräsident Frank-Walter
Steinmeier bei der Gedenkveranstaltung zum 50.
Jahrestag des Olympia-Attentats

David Berger

Anton Fliegerbauer

Ze'ev Friedman

Yossef Gutfreund

Eliezer Halfin

Yossef Romano

Amitzur Shapira

Kehat Shor

Mark Slavin

Andrei Spitzer

Yakov Springer

Moshe Weinberg

Verehrte Angehörige, Exzellenzen, verehrte Vertreterinnen und Vertreter des Bundes, des Freistaates Bayern, der Kommunen, verehrte Repräsentanten des jüdischen Lebens im unseren Land, liebe Bürgerinnen und Bürger,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wir kommen zusammen, um zu gedenken und zu trauern. Wir trauern um zwölf Menschen, die vor fünfzig Jahren beim schlimmsten Terroranschlag in der Geschichte der damals noch jungen Bundesrepublik auf grauenvolle Weise ihr Leben verloren. Wir trauern um elf Sportler und einen Polizisten. Elf jüdische Sportler, Trainer und Kampfrichter, die als Teil der israelischen Mannschaft nach München gereist waren, mit großen Ambitionen und großen

Hoffnungen.

Alle Hoffnung endete in einem Albtraum.

Acht schwer bewaffnete Mitglieder des palästinensischen Terrorkommandos “Schwarzer September” drangen am frühen Morgen des 5. September 1972 vollkommen ungehindert in das Olympische Dorf ein und nahmen die elf israelischen Sportler als Geiseln. Zwei von ihnen ermordeten sie schon im Quartier in der Connollystraße 31 grausam, die neun anderen hier an diesem Ort, an dem die Befreiungsaktion der deutschen Einsatzkräfte katastrophal scheiterte. Sie endete in einem Blutbad.

Elf jüdische Sportler waren tot, ermordet in Deutschland. Ausgerechnet in Deutschland.

Sehr geehrte Gäste, heute ist ein Tag der Trauer, des Gedenkens und des Innehaltens. Ich bin zutiefst dankbar, dass Sie, die Familien der Opfer, heute hier sind, auch, dass Sie, sehr verehrter Herr Präsident Herzog, heute hier und an meiner Seite sind. Ohne Sie alle, ohne die Angehörigen und ohne die Präsenz des Staates Israel war mir würdiges Gedenken nicht vorstellbar. Ich bedanke mich bei allen, die in den letzten Wochen dazu beigetragen haben, dass ein gemeinsames Gedenken heute möglich wurde.

Verehrte Angehörige, wir können nicht ermessen, welches Leid, welchen Schmerz Sie durchlitten haben. Wir können nur erahnen, was der Verlust Ihrer Söhne, Ehemänner, Väter für Sie bedeutet hat und immer noch bedeutet.

Wie lebt man weiter als junge Frau, die gerade ihr erstes Kind bekommen hat, dessen Vater nicht zurückkehren wird? Wie lebt man weiter mit den Bildern des von den Spuren der Mordtat gezeichneten Raums, wie mit dem Wissen, dass der Ehemann oder Vater dort in diesem Raum noch Stunden der Todesangst erleiden musste?

Wie lebt man weiter mit der Erinnerung, dass der Ehemann, nachdem er angeschossen wurde, vor seinen Kollegen unter unbeschreiblichen Qualen verbluten musste?

Wie lebt man weiter, wenn man zwei Postkarten aus München erhält, in denen der inzwischen schon ermordete Sohn noch geschrieben hat, dass alles ganz wunderbar sei und er sich auf das Nachhausekommen freut?

Ich weiß: Das Leid, der Schmerz, das Trauma, sie leben in Ihren Familien fort, bis heute. Nichts mehr ist in Ihrem Leben, wie es vor 1972 war. Nichts mehr ist so, wie es hätte sein können und sein sollen. Und fünf Jahrzehnte dauert dieser bohrende Schmerz.

Liebe Gäste, die Spiele von München, sie sollten ganz anders werden als die letzten Spiele in Deutschland, die 1936, die die Nazis als bombastische Propagandaschau inszenierten und dabei die olympische Idee scham- und skrupellos zu ihren Zwecken missbrauchten. München 1972 sollte ein Gegenprogramm zu Berlin 1936 sein. Die junge Bundesrepublik wollte sich präsentieren als weltoffene, liberale Gesellschaft, die geachtet war und respektiert im Kreis der Demokratien - und dass sie sich ihrer Verantwortung vor der Geschichte bewusst war und sich zu dieser Geschichte bekannte.

Ja, da war der Ehrgeiz, "heitere Spiele" zu präsentieren in einem Deutschland, das Pickelhaube und Stechschritt hinter sich gelassen hat. Aber da war eben auch die Verantwortung des Gastgebers für Sportlerinnen und Sportler aus aller Welt, auch und besonders für die aus Israel. Jenem Israel, das vom ersten Tag seiner Existenz an bedroht war, umgeben von Hass und Feindschaft.

In Israel wusste und weiß man, dass der jüdische Staat stark und wehrhaft sein muss. In Deutschland waren die Sportler aus Israel unsere Gäste. Ihre Sicherheit war uns anvertraut. Welch riesiger

Vertrauensbeweis war es, nach dem Menschheitsverbrechen der Shoah im Land der Täter an den olympischen Spielen teilzunehmen. Unter den Athleten und ihren Trainern waren auch Überlebende der Shoah.

Zur traurigen und schmerzhaften Wahrheit dieses Gedenkens gehört: Wir wollten gute Gastgeber sein, aber wir sind dem Vertrauen, das die israelischen Athleten und ihre Familien in Deutschland gesetzt haben, nicht gerecht geworden. Sie waren nicht sicher. Sie waren nicht geschützt. Sie wurden in unserem Land von Terroristen gequält und getötet.

Wir in Deutschland, wir waren nicht vorbereitet auf einen solchen Anschlag und hätten es doch sein müssen - auch das gehört zur bitteren Wahrheit. Wir waren nicht vorbereitet darauf, dass dieses Mal ausländische Terroristen die olympische Idee missbrauchen würden, kaltblütig und zu jeder Form von Gewalt bereit. Wir waren nicht vorbereitet auf einen Terroranschlag, bewusst inszeniert vor einem internationalen Fernsehpublikum.

Meine Damen und Herren, das Bemühen von 1972, Deutschland als friedfertige, freundliche Demokratie zu zeigen, dieses Bemühen scheiterte in München tragisch. Das Olympische Dorf wurde zur internationalen Bühne für die Attentäter, zur internationalen Bühne für Judenhass und Gewalt.

Und genau das hätte niemals geschehen dürfen.

“Fassunglos stehen wir vor einem wahrhaft ruchlosen Verbrechen”, sagte der damalige Bundespräsident Gustav Heinemann, bei den Worten selbst um Fassung ringend. Ja, es war ein wahrhaft ruchloses Verbrechen. Aber, meine Damen und Herren, das reicht zur Erklärung der Katastrophe von München nicht aus.

Viele sagten später, diese Katastrophe sei “*unvorstellbar*” gewesen. Für die, die damals dabei waren, war das womöglich das alles

beherrschende Gefühl. Aber: Hätten wir nicht - gerade wir Deutschen - hätten wir nicht wissen müssen, dass die Idee der *Unvorstellbarkeit* ein Denkfehler ist, der furchtbare Folgen haben kann? “*Unvorstellbarkeit*” soll vor Nachfragen schützen. Sie lenkt von der eigentlichen Frage ab: Warum konnte das geschehen, was niemals hätte geschehen dürfen?

Liebe Gäste, wenn wir heute gedenken, dann müssen wir uns aufrichtig und wahrhaftig erinnern. Diese Erinnerung ist schmerzhaft. Und sie ist es vor allem für Sie, liebe Angehörige. Aber sie muss es auch für uns in Deutschland sein.

Die Ereignisse in München 1972 haben tiefe, dunkle Spuren hinterlassen im Leben der Angehörigen. Das Trauma von München hat sich eingegraben ins kollektive Gedächtnis der Menschen in Israel. Tiefe, dunkle Spuren hat der Anschlag aber auch bei uns hinterlassen, in der Stadt Münch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ses heutige Gedenken kann deshalb nur dann aufrichtig sein, wenn wir zu schmerzhaften Einsichten bereit sind. Wenn wir uns dazu bekennen, dass die Geschichte des Olympia-Attentats auch eine Geschichte von Fehleinschätzungen, von furchtbaren, von tödlichen Fehlern, ja, eines Versagens war. Und dieses Bekenntnis, meine Damen und Herren, ist überfällig.

Nein, die Täter kamen nicht aus Deutschland. Die Tatverantwortung für diese Morde lag bei den palästinensischen Tätern und ihren libyschen Helfern. Es ist sehr bitter, dass von heutigen politischen Vertretern dieser Länder kein Wort der Anteilnahme, kein Wort des Bedauerns kommt. Sie, die Täter und ihre Helfer, waren es, acht palästinensische Attentäter und deren Drahtzieher, sie waren es, die ihren Hass und den Terror nach München brachten. Sie tragen Verantwortung für diese Tat. Aber damit sind wir nicht frei. Auch wir

tragen Verantwortung: die Verantwortung des Gastgebers, nicht verhindert zu haben, was wir hätten verhindern müssen; die Verantwortung, das Leben der Geiseln zu schützen, die sich in der Gewalt von Terroristen befanden.

Heute, fünfzig Jahre später, sind noch immer viele, viel zu viele Fragen offen. Die Spiele gingen damals noch am Tag der Trauerfeier weiter: *“The games must go on.”* Und auch die Politik tat alles, um so schnell wie möglich zur Tagesordnung überzugehen. Dem Anschlag folgten Jahre und Jahrzehnte des Schweigens, des Verdrängens, Jahre der wachsenden Gleichgültigkeit gegenüber dem Schicksal der Hinterbliebenen. Jahre der Hartherzigkeit. Auch das ist ein Versagen.

Wie konnte das alles geschehen? Dieser Frage müssen wir uns stellen und nach Antworten suchen. Und wir müssen diese Antworten endlich finden wollen.

Warum wurden die überlebenden Täter so schnell abgeschoben und nie juristisch belangt? Es ist schwer erträglich, dass sich einer der damaligen Täter noch heute dieses Verbrechens rühmt und vor der Kamera versichert, dass er wieder genauso handeln würde.

Was waren die genauen Verbindungen der Täter zu deutschen Rechtsextremisten oder zur RAF? Warum waren die deutschen Sicherheitskräfte derart schlecht ausgerüstet und überfordert? Hat Deutschland Warnungen aus Israel ignoriert - und warum wurde israelische Hilfe bei der Befreiung abgelehnt? Weshalb wurden Akten jahrzehntelang unter Verschluss gehalten oder gar noch ihre Existenz geleugnet? Warum gab es nicht einmal einen Untersuchungsausschuss?

Meine Damen und Herren, wir reden über eine große Tragödie und ein dreifaches Versagen. Das erste betrifft die Vorbereitung der Spiele und das Sicherheitskonzept. Das zweite umfasst die Ereignisse am 5. und 6. September 1972. Das dritte Versagen beginnt am Tag nach

dem Attentat: das Schweigen, das Verdrängen, das Vergessen!

Ich begrüße es ausdrücklich, dass die Bundesregierung nun die Einsetzung einer israelisch-deutschen Historikerkommission vorschlägt. Ich hoffe, dass es der Kommission gelingen wird, mehr Licht in dieses dunkle Kapitel zu bringen. Voraussetzung ist, dass sie möglichst umfassenden Zugang zu Dokumenten erhält und dass sie nach Kräften in ihrer Arbeit unterstützt wird.

Den Experten aus beiden Ländern kommt eine große Verantwortung zu: Ihre Arbeit wird vielleicht schmerzhaft, unbequeme Wahrheiten zutage fördern, auch zutage fördern müssen. Aber wir müssen die Geschichte von München '72 aufarbeiten - und im Übrigen auch die Geschichte der Nichtaufarbeitung.

Eine wichtige Lehre von München '72 ist: Wir müssen jede Form von Antisemitismus in unserem Land, von antisemitischem Hass und erst recht von antisemitischer Gewalt entschieden bekämpfen. Das ist und bleibt unsere Verantwortung vor der Geschichte.

Eine weitere wichtige Lehre: Wir müssen als Demokratie wehrhaft sein. Freiheit und Sicherheit sind keine Gegensätze. Sie bedingen sich gegenseitig. Eine freiheitliche Gesellschaft kann sich niemals vollständig schützen vor Terrorangriffen, die auf eines zielen: die Freiheit nämlich. Aber wir müssen wachsam sein gegenüber den Feinden der Demokratie, den inneren wie den äußeren. Denn wir leben in einer Zeit, in der die liberalen Demokratien stärker angefochten werden, von innen wie von außen.

Und noch eine Lehre gibt uns München '72 auf: Nur wenn wir die Wahrheit wissen, wenn wir uns zu unseren Fehlern und Versäumnissen bekennen, kann die Wunde, die auch unser Rechtsstaat 1972 davongetragen hat, kann diese Wunde heilen.

Liebe Gäste, aber es geht natürlich nicht um uns, und erst recht

nicht nur um uns. Es geht vor allem um die, die damals ihr Leben verloren haben. Es geht um Sie, die Angehörigen. Sie haben ein Recht darauf, endlich die Wahrheit zu erfahren. Endlich Antworten auf die Fragen zu erhalten, die Sie seit Jahrzehnten quälen. Und dazu gehört auch die Frage, warum Sie mit Ihrem Leid, Ihrem Schmerz so lange alleingelassen wurden.

45 Jahre sollte es dauern, bis ein würdiger Ort der Erinnerung auf dem Olympiagelände eingerichtet wurde. Bei der Eröffnung vor fünf Jahren waren der damalige israelische Präsident Reuven Rivlin und auch einige der Hinterbliebenen dabei. Wir haben gemeinsam getrauert, uns gemeinsam erinnert. Aber es sollten noch einmal fünf Jahre vergehen bis zu einer Einigung über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Liebe Gäste, liebe Angehörige, lieber Präsident Herzog, wir sind vereint im stillen Andenken an die zwölf Menschen, die damals ihr Leben verloren haben. Wir sind vereint im Schmerz. Aber wir sollten nicht vergessen: Es ist Ihr Schmerz, der Schmerz der Angehörigen. Es ist Ihr Schmerz, den wir viel zu lange nicht ausreichend gewürdigt haben. Und ich weiß auch: Auch die jetzt gefundene Verständigung wird nicht alle Wunden heilen können.

Ich richte die folgenden Worte deshalb ausdrücklich an Sie, deren Leben seit fünfzig Jahren von Verlust, Trauer und Schmerz beherrscht ist: Wir können nicht wiedergutmachen, was geschehen ist, auch nicht, was Sie an Abwehr, Ignoranz und Unrecht erfahren und erlitten haben. Das beschämt mich. Deshalb habe ich vor fünf Jahren hier in München um Entschuldigung gebeten und ich füge heute hinzu: Ich bitte Sie als Staatsoberhaupt dieses Landes und im Nam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m Vergebung, um Vergebung für den mangelnden Schutz der israelischen Athleten damals bei den

Olympischen Spielen in München und für die mangelnde Aufklärung danach; dafür, dass geschehen konnte, was geschehen ist.

Es ist meine Pflicht und mein Bedürfnis, unsere deutsche Verantwortung zu bekennen - hier und heute und für die Zukunft. Möge der heutige Tag dazu führen, dass Sie, die Angehörigen, sich wahrgenommen fühlen in Ihrem Schmerz, dass Sie spüren, dass es uns ernst ist mit unserer Verantwortung.

Meine Damen und Herren, liebe Gäste, verehrter Herr Staatspräsident, die Freundschaft, die Versöhnung, die Israel uns geschenkt hat, ist nicht weniger als ein Wunder. Möge der heutige Tag auch dazu führen, dass wir Deutsche uns des kostbaren Guts würdig erweisen, das die Grundlage dieser Freundschaft ist - jenes Guts, das vor fünfzig Jahren an diesem Ort so beschädigt wurde: Vertrauen.

Vielen Dank.